한국불교 위기…전통문화 지켜나가야

e 해외불교칼럼

한국불교는 전통문화를 지켜내며 외래종교와 적절한 관계 유지를 해야한다. 사진은 종교인친선축구대회에 모인 각 종교인들.

한국불교는 372년 중국의 한 승려가 불경, 불상 등을 처음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이내 기존 토속신앙과 혼융됐다. 당시 삼국 중 최초의 불교정착지역은 고구려며, 백제는 384년에 왕이 불문에 들어서자 백성들도 그 뒤를 따랐다.

신라는 527년 불교가 정착한 후 커다란 번영을 이뤘고, 668년 삼국을 통일하면서 찬란한 불교문화유산을 남겼다. '코리아'라는 한국의 국제 명칭을 남겨준 고려 왕조는 10세기 즈음에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하고 가장 완벽한 한자 대장경본 조판 등 위대한 불사를 일궜다. 그 즈음 등장한 고승 지눌은 선과 교의 균형을 강조하여 한국 선불교의 특징으로 이어져왔으며, 그가 중창한 조계산 송광사는 오늘날까지 조계종의 본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다. 뒤이어 14세기에 성립된 조선왕조가 중국의 새로운 유교사상을 도입함으로써 불교는 내리막길로 내몰렸다.

사대주의적인 조정의 칙령에 따라 도성들의 불교사찰들은 파괴되고 건립이 통제됐다. 승려들 또한 산중으로 축출, 유폐되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찰들은 여전히 산악지역에 남아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줄곧 산사를 찾음으로써 불교는 민중 신앙으로서 위치를 지켜갔다.

이후 1910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에 한국불교는 중흥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승려의 결혼이 강요됐다. 이런 정황에서 한국불교는 여태 민중 신앙으로서 유지해오던 자리마저 잃고 또 한 번 내리막길로 내몰렸으며, 이는 당시 막 들어온 기독교가 번창하는 계기가 됐다. 한때 선두적인 막강한 불교국가이던 한국에 오늘날까지 남은 불자는 전체 인구의 고작 반 정도이며, 그 나머지는 기독교의 엄청난 선교공세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

기독교가 한반도에 착지한지는 2세기 남짓이나, 한국전쟁 이래 밀려든 미국 선교사들로 급격한 교세확산을 거듭해왔다. 그들은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쟁탈의 제국주의에 편승했던 선교사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짐짓 반 식민주의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게다가 선교사들에 실려 온 서구문화와 종교가 한때 한반도를 장악했던 일본, 중국 등의 것과 달라 피압박민족의 공감을 쉽게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극히 불행하게도, 대다수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존경심을 지니지 않았다. 만일 한국인들이 기독교 선교에 수반된 외래침입자들의 침공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놓친다면, 한국의 전통문화는 더욱 심하게 훼손될 것이다.(역자 주;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파악하려면 Buddhism under Siege 1982-1996 by Ph.D. Frank Tedesco, 공격당하는 불교, 프랭크 테데스코 박사 / Christian perceptions of Buddha in Korea (1) Religious Situation in Korea by Ph.D. Martin Roetting, Germany, Engl. tr. Robin Evans 한국에서 붓다에 대한 크리스천의 인식-한국의 종교현황, 독일 마르틴 뢰팅 박사, 영역 로빈 에반스 등 참조) 이제 한국의 불자들이 자신들의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지켜가자면 우선 외래적인 가치관이 파고드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불교가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에 막대하게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재인식하고, 이를 조상 대대로 지켜온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출처:부디스트채널 / 편역: 성휴 스님

필자:그레이엄 라이얼-호주 종교학자, 저서 '종교와 인종차별 ; 편견 없는 관용' 등을 통해 다문화적 종교교육 강조.

유럽불교기독교聯 국제회의 개최

유럽불교기독교연구연합은 2009년 6월 독일 뮌헨의 성 오틸리엔 베네딕트 대수도원에서 제8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6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그 대학과 공동으로 성 비르길 사원에서 열린 '타종교에 대한 불제자의 자세'라는 의제의 7차 회의에 이어지는 2009년 8차 격년회의는 '불교 및 기독교 내의 권위와 진리의 근거'라는 주제를 다루며 사전 연구논문제출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buddhist-christian-studies.org)를 통해 추후 공고된다.

출처:부디스트채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실리콘밸리 샴발라 영화 감상회

실리콘밸리의 여러 불교 법우회 중 특히 참선지도에 주력하는 실리콘밸리 샴발라는 10월 10일 '집으로 가는 길(On the road Home)'이란 제목의 월례 영화 감상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열두 명의 여자들이 구도 행각 끝에 지혜와 자비로 엮인 커다란 실타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의 감상회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함께 진행됐다.

미국 내 각종 불교 서클들이 포교와 교육용으로 감상하는 영성적 소재의 영화들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등 한국영화도 인기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출처: 실리콘밸리 샴발라

파리·베를린 승가協 공동법회

파리 승가협회는 10월 31일 야간열차로 파리를 출발, 베를린의 오스트반호프역에 도착 후 베를린 승가협과 친선주말회동을 가졌다. '앞으로 나아가자'는 주제의 공동법회는 베를린 불교센터의 회장인 아모가라트나 법사가 진행, 토론회와 참선, 공양으로 이어졌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수계할 예정인 파리 승가협 소속의 피에리 파리고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번 회동은 베를린 승가협의 세심한 준비와 배려로 파리 측 도반들의 감사와 격찬을 받았다. 베를린 측은 파리 승가협이 정식 요청한 내년 파리에서의 교환방문을 수락했다.

출처: FWBO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❶

"시합하는 매순간이 수행이지요"

동양인 어머니 덕에 불제자 길로
금불상 지녀 심리적 안정감 얻어

예술제국인 할리우드는 자유분방과 다양성의 상징이자 모든 변신과 응용이 가능한 곳이다. 불제자 중 무술사범과 스턴트맨을 하다 배우가 된 스티븐 시걸, 록 밴드 공연도 했던 시인 앨런 긴즈버그의 경우도 있으며, 올리버 스톤과 조지 루커스 등 영화계 거장들도 온갖 인생역정을 거친 불자들이다.

그들은 각자 재능과 역할은 다르나 대중을 즐겁게 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한 대중에 밀착, 특히 청소년층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유명 스포츠맨도 마찬가지다. NBA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조한 필 잭슨 등 스포츠계 불자들도 할리우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대스타다. 그것이 골프의 귀재 타이거 우즈를 여기 소개하는 이유다.

환갑을 넘기고도 이따금 PGA 투어에 출전하는 전설적인 챔피언 골퍼 탐 워츤은 미처 스물다섯 살도 못되어 골프계의 황제로 등극한 타이거 우즈를 정밀 관찰한 끝에 입을 열었다. "타이거는 스트레스, 중압감, 근심, 초조감 등 모든 심리적 장애요소를 차단하는 특수면역체계를 지닌 초자연적 인물이다." 실제로 침착과 냉정은 타이거 우즈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며, 그 자신도 이를 인정한다.

"저의 심적 균형과 강인함은 불교에서 비롯한 겁니다. 또 전통적 불교국가인 태국 태생의 엄마 덕분이죠. 독실한 불제자인 엄마는 제게 늘 그러셨어요. 서양인들처럼 삶을 만들려 애쓰지 마라. 동양인들처럼 삶이 그냥 되어지게 둬라." 이는 자기 체념이 아니라 자기 관조를 뜻한다. 그녀는 자식의 로드맵을 맘대로 그려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들들 볶다가 결국 동반 추락하는 그런 어설픈 극성 엄마가 아니라, 그 스스로 갈 길을 읽어가도록 가르친 지혜로운 보살님이었다.

골프 필드가 절이며 시합 중 매 순간이 수행인 우즈의 불교철학과 식견 또한 대법사의 경지에 이르렀다.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존에 대해 일깨워 주는 트인 길이죠. 절제, 존경, 책임감, 세 가지 덕목이 불교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은 우리 미국인들보다 자제력이 강합니다. 동양의 어린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태도가 훌륭합니까? 우리 엄마는 제가 딱 그렇게 되도록 키워주셨어요. 전 외할머니가 주신 작은 금불상을 늘 가까이 모시며 안정감을 얻지요."

본명이 엘드릭 우즈인 타이거 우즈는 1975년 12월 캘리포니아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얼 우즈는 흑백 혼혈이고 어머니 쿨티다 우즈는 중국계 태국 태생이다. 그 혈연관계에 대한 타이거 엄마의 재미있는 얘기다. "우리 애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토착원주민의 피를 다 지녔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보듬어줄 수 있는 진짜 지구인이죠." 미 육군 중령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군인으로 당시 절친했던 베트남군 동료의 별명에서 딴 타이거란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다.

목적의식과 책임감이 투철한 직업군인이던 그는 쉽사리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과묵한 품격의 소유자며, 특전부대인 그린베레에서 심리전 훈련을 받아 의식과 잠재의식의 조절능력이 뛰어났다. 그는 자신이 터득한 교육성과를 발휘하여 아들이 열여덟 살이 될 때까지 심리적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도왔다. "전 아버님의 교육덕분에 골프 코스에 나설 때마다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버님께 배운 데로 제 자신의 잠재의식을 신뢰하는 거죠. 지금껏 제 본능이 저를 저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언젠가 그는 치열한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훌륭한 스포츠맨은 훌륭한 불교 수행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알아보는 불교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사람은 하는 행실로 인해 상것이 되는 것이라오

When dwelling at Savatthi, Bhagavat with his alms-bowl approached the house of a Brahman priest to beg for food, who shouted, "Stay there, you shaveling, wretched samana, outcast !" Bhagavat replied:"Who is an outcast? An outcast is the man who is angry and bears hatred, who is wicked and hypocritical and who embraces error and is full of deceit. Whosoever is a provoker and has evil desires, is envious, shameless, and without fear to commit wrong, let him be known as an outcast.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n outcast or a Brahman; but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or a Brahman."

사바티에 계시던 세존께서 발우를 들고 어느 브라만 승려의 집에 탁발하려 다가서자 그가 버럭 내질렀다. "거기 서! 까까중, 천한 사문, 상것아!" 그러자 세존께서 이르셨다. "상것이라 하셨소? 상것이란 화내고 미움을 품고, 교활하고 위선적이며, 그릇됨을 받아들이고 기만에 가득 찬 이를 말하오. 누구든 남을 부추기고 사악한 탐욕을 지니며 질투하고 파렴치하며 겁 없이 못된 짓을 한다면 마땅히 상것이라 할 것이오. 사람은 태어남으로 해서 상것이나 브라만이 되지 아니하되, 하는 행실로 해서 상것이나 브라만이 되는 것이라오."

번안: 성휴 스님

"원인이 있습니다"

＊관세음＊ 지장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력!

몸소 체험하시고 훌륭한 불자님 되세요

＊ 모르고 잘못행한 행동과 습관이 떠도는 영을 불러들여 몸의 이곳 저곳에 숨어지내는 마구니는 그 나쁘고 음습한 기운으로 인하여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다.
＊ 소승은 빙의되어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영가를 천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신속하고 명쾌합니다.

＊ 빙의(영가)가 천도되면 어둡고 거칠은 얼굴색이 맑고 밝아지며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각종, 우환, 병고, 악연, 방황 등이 소멸되어 새롭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가내 길상(천도재) 전문 기도

※ 가출청소년귀가기도	※ 이사후 사건,사고 잦으신 분 ※ 가정불화, 사업부진
※ 신내림(무병)소멸기도	※ 정신질환, 가위눌림, 우울증 소멸기도
※ 합격기도(각종시험에 계속 낙방 되시는분)	
※ 병원치료후 회복부진	※ 혼사에 장해가 있는 분

아토피 (바르면 가렵지 않음) 한정분 무료보시

◆소승의 소개글
- 성관세음, 백의 관세음보살님 친견
- 친견인연 공덕으로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달마존상도 등을 친필수작 불사포교
- 1998년 7月 24日 KBS 2TV "달마도의 신비에 출연"
- 만봉스님계열 불교 미술 탱화 사사수행, 한국미협회원

"이사후, 밤이되면 심하게 놀라거나 크게 우는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하는 신묘한 기운이 깃든 상서로운 그림..."
① 친필수작 개내길상 "수목관세음 보살도"와 달마대존도, 족자 중 1점 택일
② 친필 수작 경면주사 "소지용" 달마대존도 3점
[합4점] 보시금 50만원

사찰 건립 불사시주 받습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 법회에 처음 동참하신 불자님께 소지용 달마도 1점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30-3번지 도법사 주지 무하 합장 H.P 017-331-0769 / TEL 02)429-0769
※ 예불 법사로 인하여 오전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농협 221104-52-037131 예금주 : 김병룡)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